

“인공지능(AI)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인다” 근로복지공단-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 가입예측 인공지능(AI)로 ‘푸른씨앗’ 확산.. 노후 안전망 촘촘하게
- 제도 확대 시점 맞춰 데이터 행정 혁신 본격화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유니스트는 1일 유니스트 본교에서 공공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교육·기술사업화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호 협력과제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AI 가입예측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단이 보유한 사업장 형태, 업종별 특성 등 빅데이터와 유니스트의 AI 기반 분석·연구 역량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잠재 수요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는 정밀한 가입예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제도 안내와 행정 효율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수 17만 명, 적립액 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표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협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유니스트의 수준 높은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 접목해 푸른씨앗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ی겠다”라며, “이를 통해 공단이 임금체불의 구조적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공단 64개 소속기관 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담당 부서	퇴직연금국 퇴직연금운영부	책임자	부 장	박연금 (052-704-7699)
		담당자	팀 장	정경희 (052-704-7363)

